

"위령비라도 세워 주세요"

이윤형 기자 yhlee@hallailbo.co.kr

입력 : 2006. 12.07. 00:00:00

산방산 갱도구축 해남 옥매산 광부

100여명 고향가다 선박침몰로 사망

전남 해남 출신 김장순씨 한맺힌 호소

"60여 년 전 제주에서 일본군의 굴(갱도)파는 공사에 동원됐다 귀향하던 중 선박침몰로 희생한 사람들의 위령비라도 세워주세요"

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3월에 당시 전남 해남에서 제주로 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일본군 갱도 구축공사에 동원됐다는 김장순씨(76·제주시 오라1동)가 본보 '고난의 역사 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' 특별취재팀을 만나 한맺힌 사연을 털어냈다. <관련기사 7면>

전남 해남군 문래면 원문리가 고향인 김씨에 따르면 "당시 자신의 고향에 있는 '옥매산광산'에서 일하던 광부 2백50명이 화물선 3척에 승선해서 성내포구(제주시 산지포구)로 들어와 산방산으로 이동, 거기서 굴을 팠다"고 말했다.

김씨는 "이들 중 2백10명이 광복 직후에 고향인 해남으로 귀환하기 위해 30~40톤 정도의 화물선을 타고 가던 중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절반인 1백5명이 죽었다"며 생존자 중 일부는 현재도 고향에 있다고 말했다.

하지만 이 사건은 김씨 등 유족들이 그동안 관계당국에 수차례 호소하고 진상규명과 위령비 건립 등을 탄원했으나 아직까지 사건전모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등 베일에 가려져 있다.

김씨는 "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가 음력 7월 17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력 7월 16일이 선박침몰 날짜"며 "지금도 고향마을에서는 한낱한시에 제사하는 집이 여러 가구가 된다"고 증언했다.

그러면서 "행정기관 등 당국에 희생자들을 위해 위령비라도 세워주고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"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.

<저자권자 © 한라일보 (<http://www.ihalla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